

투데이 칼럼

성공하려면 때를 놓치지마라

세 상일은 다 때가 있다. 인생의 때를 잘 잡은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자가 된다. 사업의 때를 잘 잡은 사람은 사업에 성공한 자가 된다. 공부의 때를 잘 잡은 사람은 훌륭한 지식인이 된다.

성경 전도서를 보면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은 다 이를 기함이 있다는 것을 나열하고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때가 있고 웃을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 출 때가 있으며, 구할 때가 있고, 없앨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했다.

때는 나를 위해 기다려 주지 않는다. 한번 가버린 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은 '때를 잘못 잡았다. 시대를 잘못 만났다'며 남의 탓으로 돌린다.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와 때를 놓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인생의 성공은 때를 놓치지 않는 데 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젊음이 있을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오늘 배

우지 아니 하고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올해에 배우지 아니 하고서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날과 달은 흐르니 세월은 나를 위해서 더디 가지 않는다.

아! 늙었다. 이 누구의 허물이고,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일깨웠다.

배우는 것은 다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배우지 못하고 만다.

오늘 배우지 아니하고 내일로 미루고, 급년에 배우지 아니하고 내년으로 미루어 세월이 하루하루 덧없이 흘러가고 보면 어느덧 나이가 들어 늙어 버린다. 배우고 싶어도 이미 때는 늦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잘못이다.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후회한들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쇠로 연장을 만드는 대장간에서 '뜨거울 때 쇠를 두들기라'고 한다. 쇠를 아주 강한 불에 달구면 부

드러워져 망치로 두들겨 모양을 잡는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어려움을 겪는다. 기회를 놓치면 많은 수고를 해도 별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일상생업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세번 온다고 말한다.

그중 딱한번의 기회만 붙잡으면 성공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이때, 이순간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과거로 흘러갈 뿐이다. 세계 위인들의 명언이 있다.

강철왕 카네기는 '기회 앞에는 항상 절박하라. 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은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교훈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그리 대단치 않게 여기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줄 모르고 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한다.

하지만 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고 했다.

김재춘

前 전주동양초등학교장



지금은 전북관광 내실을 다질 때

지금은 전북 관광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신경써야 할 곳에 신경을 써야한다. 지금 이대로는 전북 관광의 미래가 밝지 않다. 최근에 문광부가 국민 여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북 관광의 빛과 그림자랄까 그 장점과 단점이 고스란히 보이고 있다. 겉보기로 관광객 숫자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 조사 내용을 보면 우리 전북 지역이 개인여행지로서의 만족도가 제주도에 이어 전국 2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국민 여행지로서 전국 2위에 랭크돼 있으면서도 다시 방문하고 싶은 지역이 못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지역도 아니라는 거다. 이것은 얼핏 생각할 때 이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개인 여행지로서는 그 평가가 우수한데 다시 찾고 싶은 지역도 아니고 추천하고 싶은 지역도 아니라는 말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전북도와 관광사업 관계자들은 분석을 잘해야 한다. 전북 관광의 활기를 위해서 진단을 잘 내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새로운 관광홍보 전략과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제 관광 분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쪽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 여행지로서는 마음에 들어도 재방문 지역으로나 추천지역으로는 점수를 못 받고 있다면 관광 수익은 보나마나 뻥하다. 겉으로는 그럴듯해도 속된 강경 바로 그것일 터이다.

전북 관광의 브레인들이 활성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수도권 관광객은 물론이고 중국인 관광객과 일본인 관광객도 유치해 지역 경제에 힘을 보태도록 해야 한다. 수익을 미리 예측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것은 온전히 관광사업 종사자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내실 다지기 행보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덥고 습한 요즘 식품 위생에 신경써야

덥고 습한 때이다. 관광지에서 손님에 맞는 이들은 식품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음식물마다 청결하고 신선한지 신경을 써야겠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는 다른 업소들도 그래야 한다. 식재료를 공급하는 이들도 물론이다. 일반 손님에 맞는 음식점에서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더운 여름철 자칫했다가는 변질된 식재료나 음식물 때문에 식중독 같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철에도 어떤 이들은 회를 즐겨하는데 청결에 보통 이상의 주의가 요망된다. 설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라디야 하는 정신태도로 횡간을 즐겨해서는 곤란하다. 바로 비브리오패혈증 때문에 하는 말이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한 번 발병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는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한 완전 퇴치가 어렵다는 사실적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 발병이 수 년전이나 있었던 일이라며 경계하지 않는 이가 더러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잘못된 정신태도를 바로 잡기 위해 보건 당국의 계몽이 활발해야겠다.

요즘 마른 장마가 계속되고 있지만 덥고 습한 날이다. 식품 위생과 관련하여 신경을 써야 할 게 하나 들어 있다. 이 달 들어서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계속 되고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비교적 변질 염려를 덜 했던 식품에 대해서도 보통 이상의 주의가 요망된다. 관향을 줄로 알았던 음식 때문에도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북 지역의 모든 업소들은 다른 지역의 업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반면교사의 사례로 삼아야 한다.

요즘 무엇보다도 요주의 대상은 조개류나 생선류이다. 여름철 식품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선은 개개인이 알아서 신경을 써야겠지만 보건 당국도 할 일은 해야 한다. 꾸준하고도 광범위한 예방 활동 말이다. 보건 당국이 애써 일한 만큼 도민들의 여름철 건강이 지켜질 터이다. 보건 당국 관계자들은 두루 각별한 관심을 갖고 덥고 습한 요즘 도민의 건강을 챙겨 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요즘 무엇보다도 요주의 대상은 조개류나 생선류이다. 여름철 식품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선은 개개인이 알아서 신경을 써야겠지만 보건 당국도 할 일은 해야 한다. 꾸준하고도 광범위한 예방 활동 말이다. 보건 당국이 애써 일한 만큼 도민들의 여름철 건강이 지켜질 터이다. 보건 당국 관계자들은 두루 각별한 관심을 갖고 덥고 습한 요즘 도민의 건강을 챙겨 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독자제언

여름철 빈집털이 사전에 예방하자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로 접어들면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여름 휴가철이면 대부분의 가정에선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데 이만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건 바로 빈집을 노리는 절도범이다. 따라서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빈집털이를 예방해야 한다.

첫째, 현관문과 창문 등의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잠금장치는 이중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창문에는 방범창을 설치하고 도시가스관이나 에어컨 배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외부에서 볼 때 집이 비었다는 표시를 없애야 한다.

TV는 시간예약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고, 절도범이 전화를 걸어 집이 비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착신 전환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우유나 신문, 우편물 등은 이웃에게 부탁해 받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경찰의 '빈집신고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장기간 집을 비울 시 주소지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빈집신고제'를 신청하면 수시로 경찰이 그 주소지 주변을 순찰하면서 집이 안전한지 점검을 해준다.

양예라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자동차 탑승시 가장 먼저 안전벨트착용 부터

자동차에 탑승을 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어떤 분은 담배부터 한 대 입에 무시거나, 또 어떤 분은 라디오부터 켜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일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올라타시면 가장 먼저 안전벨트부터 착용하셔야 합니다.

초기에는 자동차 안전벨트는 비행기 안전벨트처럼 허리만 감싸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정의 의미를 더 크게 지니고 있는 형태로 요즘도 버스 승객용 안전벨트는 이 방식이죠.

하지만 이 벨트의 경우는 허리만 잡아주기 때문에 우선 충격 발생시 허리 및 복부를 강하게 압박해 장기 손상의 위험이 있고, 머리과 등이 앞으

로 쏠리기 때문에 척추 및 두부 손상을 피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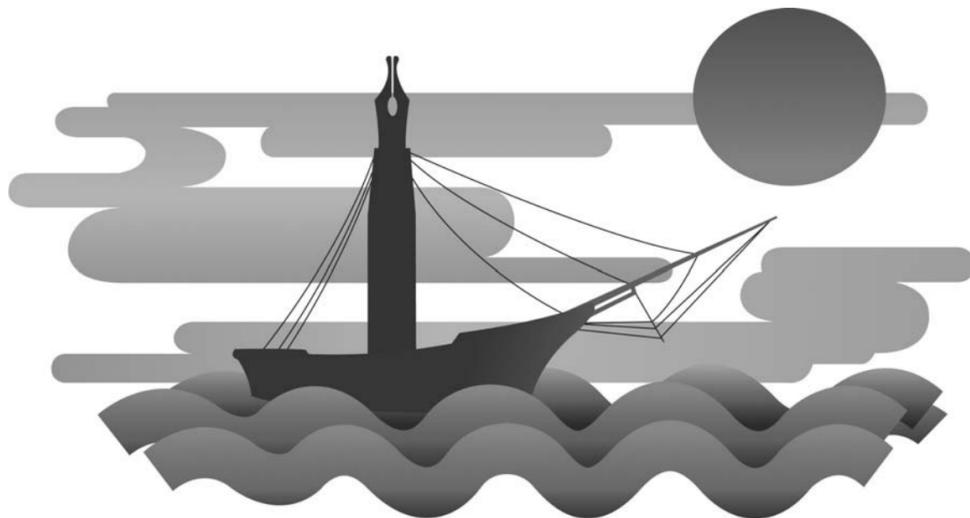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것이 바로 슬더 벨트입니다.

허리가 아닌 어깨부터 가슴을 교차해 허리 옆에서 고정되는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는 3점식 안전벨트에서 허리 부분을 빼낸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감싸는 방식보다 가슴, 척추, 머리 부상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트가 미끄러거나 시트 포지션이 맞지 않는 경우 허리를 감쌀 수 없어 시트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안전벨트는 자동차 안전 운행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정명근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사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